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2020. September

통권

제 3 호

발행인 이기순 | 발행일 2020년 9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가정폭력 두려움에 가출한 청소년, 자립을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

- 1 가정내 청소년 폭력 알고 있나요?
- 2 가정폭력의 악순환 끊기, 청소년에게 해답을 묻다
- 3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과 향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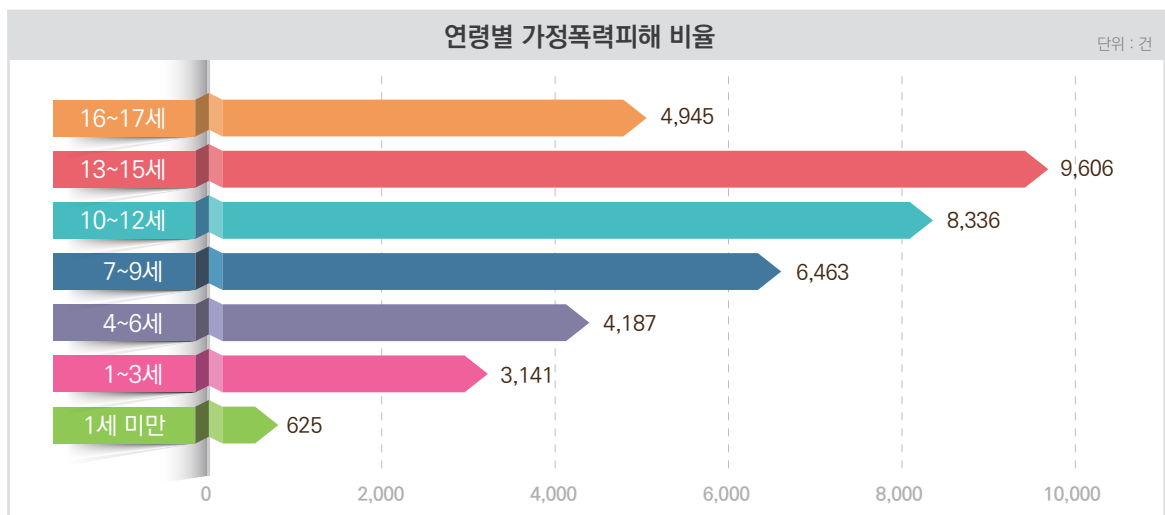
참고문헌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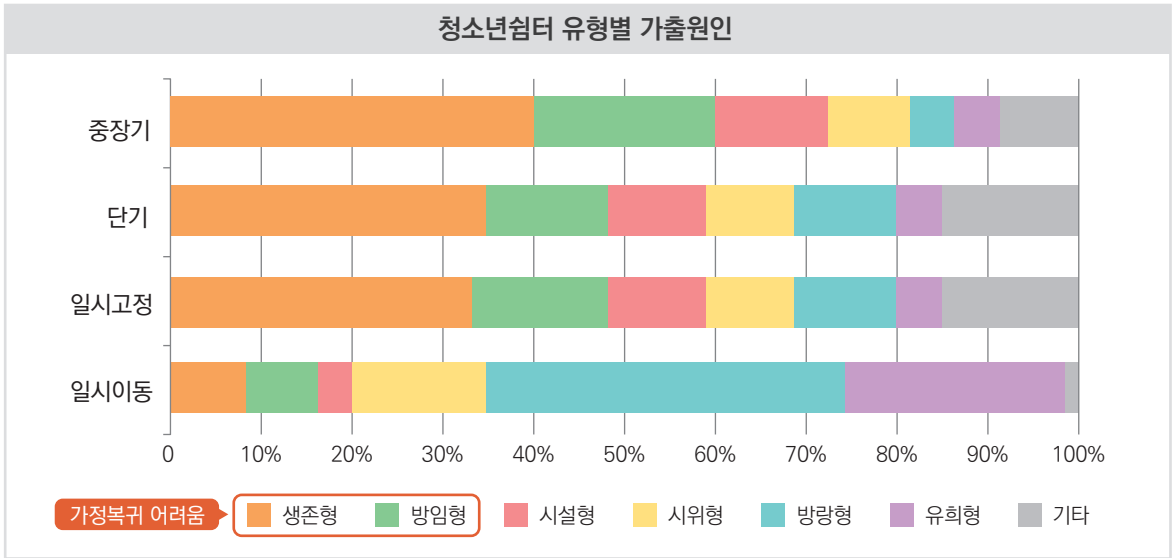
1. 가정내 청소년 폭력, 알고 있나요?

-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법에 규정되어 있음. 가정폭력은 ‘부부간 폭력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학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에 정의되고 있으며, 흔히 성인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하는 가정폭력을 아동학대, 노인에게 하는 가정폭력은 노인학대로 지칭함.
- 가정폭력 행위는 폭행이나 상해뿐만 아니라 유기, 폭사, 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학대나 폭력을 포함하여 상당히 넓은 범위로 규정되어 있음.
- 최근 정부는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2020년 5월)’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의 일부 개정안을 공포(2020년 6월)하여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해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 이는 국가가 위기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한 것임.
- 그동안 가정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폭력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후, 가정이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면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이승환. 2020.07.04.).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2019),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년 70% 이상이고, 재 학대 사례 중 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이 95.4%이었음. 주목할 점은 만 13세에서 15세가 전체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24.7%로, 이 연령대 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는 청소년 통계에서 학교급별로 보았을 때 중학생(3.4%)의 가출경험이 가장 높았다(고등학생 3.1%, 초등학생 1.3%)는 조사결과와 연관지을수 있음(통계청, 219).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 부모의 학대행위는 청소년 가출과 무관하지 않음. 청소년 가출은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생존형 가출’(40.1%)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방임형 가출’(20.9%) 비율이 가장 높고, 귀가 거부 사유도 ‘집에 돌아가도 전과 같은 문제를 겪을까봐 걱정돼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에 가기 두려워서’가 가장 많음(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19). 즉 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중 대다수가 비자발적으로 가정을 떠나게 된 ‘가정밖 청소년’이라 할 수 있음.



출처: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19). 가정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실태조사.

-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인 가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탈가정을 결심한 청소년들은 ‘비행 청소년’이라는 낙인과 생계의 불안, 고립 등으로 고통 받고 있음(허윤희, 2019.11.04.). 가출청소년 대다수가 가정에 돌아가더라도 또다시 가정폭력으로 인해 재가출을 하게 돼 이들이 악순환을 고리를 끊게 할 사회보호체계가 더욱 필요.



2. ‘가정폭력의 악순환 끊기’, 청소년에게 해답을 묻다.

- 폭력의 세대간 전이로 표현될 만큼 가정폭력의 전염성은 강하며, 피해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을 저해함. 가정폭력의 굴레를 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현재 청소년 중장기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4명과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이들은 과거 가정폭력 경험이 있지만, 현재 학대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 가고 있음.

‘가정폭력...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감옥 같은 곳’

피해 청소년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폭력이 복합적으로 행해짐. ‘전국 아동학대조사’에서도 아동학대 유형 중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중복해서 발생한 경우가 4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아빠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부터 자주 폭력이 있었어요. 클수록 더 때렸죠”



청소년A



청소년C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버지의 폭력이 시작됐는데, 폭언이랑 때리는 거 둘 다 심했어요”

가정폭력 가해 부모나 보호자의 주된 특성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성격이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알코올 중독 등 약물 남용에 대한 문제를 가짐(김기현, 염동문, & 유비, 2019).

“아빠가 술을 많이 드셨고 원래 분노 조절을 못 하는 사람이셨는데, 할머니한테도 나쁘게 행동하는데... 아빠가 집 상황이 안좋은 거를 저한테 푸는 게 한동안 너무 심해서...”



청소년A



청소년B

“평소에도 행동을 감시하는 것처럼 아빠 연락이 많았고 학교가 끝나면 무조건 집으로 와야 했고”

또한 부모나 보호자들은 양육방식에 있어서도 양육지식이 부족하여 강압적이고 처벌적인 양육태도를 취함(김기현, 염동문, & 유비, 2019).

“제가 공부하기 싫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학업성적이 오르지 않으니.... 친언니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괜찮았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잘 들었는데 저는 공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안하니까”



청소년C

‘실업 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로 가정폭력은 더욱 심각해져’

양육자 개인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이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가 많은 가정에서 가정폭력은 자주 발생함(김세원, 2016). 즉, 경제위기로 인한 부모의 실업이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한부모 가구, 그리고 공공자원이 부족하거나 범죄율이 높은 지역사회 환경과 같은 사회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부모로 하여금 생존에 대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양육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김세원, 2016) 자녀에 대한 폭력 가능성을 높임.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같이 화기애애하고 일상얘기 하다가... 아버지가 과거가 좀 안 좋으시거든요. 과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때리세요. 술을 열 번 마시면 여덟 번은 그래요. 3년 전 직장 그만두셨는데, 스트레스도 심해서 그 이후로 술을 거의 매일 마셔요”



청소년B



청소년B

“아빠랑 둘이 사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때렸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죠”



청소년A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고, 아빠는 따로 원룸에서 혼자 사는데도 초등학교 4학년 정도부터 언어폭력이나 잦은 폭력이 있었어요. 클수록 때렸죠”

‘정작 가해 부모는 아이들 탓..’

가해 부모들은 ‘폭력의 의도가 없었다’, ‘자신의 행위는 폭력이 아니었다’, ‘자녀가 문제가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었다’며 폭력을 합리화하거나 자녀의 탓으로 돌리고, 자녀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함(김지윤, 2020.09.21.). 따라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조치가 절실함.

‘도망가거나 신고하거나...어떤 선택도 쉽지 않아요’

가정폭력 피해 후 청소년들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생존형 가출’을 선택하기도 함. 때로 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훈육의 수단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청소년들은 비행에 빠지거나 가출을 시도하는 악순환의 패턴을 보임.

“아빠한테 많이 맞아서 가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집에 있으면 자꾸 맞으니까”



청소년B



청소년A

“아빠 때문에 속상해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술을 먹었어요. 학원 마치고 집에 와야 할 시간에 연락이 안 되니까, 계속 아빠 연락이 와서 ‘어디냐?’고 묻는데 제 말투도 이상하고 하니깐 ‘술 먹었냐?’물었어요. 평소에는 아빠 말에 복종했었는데 그때는 반항적으로 말을 하니깐 저보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술김에 화가 나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안들어갔어요”

또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계획하거나 신고하기도 함.

“너무 신고하고 싶은데 증거 없이 신고하면 경찰은 처음 신고하는 사람들은 주의하라고만 하고 넘어간다고 하니까 확실한 증거를 모아 신고하려고 했어요. 증거 모으느라 오랫동안 폭력이 지속됐어요”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폭력이 언제 다시 행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학대 신고로 학대 행위자와 분리된 후에도 학대 행위자와 다시 마주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지냄.

“(아빠가) 가정폭력으로 1년 6개월 형을 받고, 이번 달 말일에 나오거든요. 솔직히 언젠간 나오겠지 하면서 신경 안 썼는데, 요새 불안하기도 하고 꿈에도 자주 나오기도 하고. 저희 아빠가 옷을 똑같은 것만 입고 다니는데 (중략) 그런 비슷한 사람만 봐도 깜짝 놀라는 것도 있고... 불안한 감정이 남아 있죠”



“아빠가 뺨히 경찰서 앞에 버티고 서있을 거라는 걸 아는데 경찰서에서 (집에)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때리면 그때 다시 신고하라고 대책 없이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도 밖에 아빠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를 믿고 나갔는데 아빠가 있는거 보고 할머니에게 얘기했더니 아빠가 너를 죽이겠냐고...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폭력으로 인한 상처와 불안.. 왜 저는 부모가 아니라 제가 미울까요?’

청소년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심리적 무력감을 경험하고, 대인관계와 학교적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면서 자존감이 하락됨.

“제가 하도 많이 맞다보니깐요. 얼굴 쪽으로 뭐가 온다 싶으면, 좀 많이 쭈어요. 친구들이 인사하려고 손을 올려도. 한 번씩 집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좀 빨리 뛸 때가 있죠. ‘또 언제 두들겨 맞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확 들면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도 열심히 했었는데,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성적도 떨어지고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따돌림도 당하고.... 집에서 자주 맞으니까 성격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대인기피증도 생겨서 다른 사람처럼 대화할 때 시선을 못 맞추거나 말을 잘못 하게 됐어요..”

“제가 자존감,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학교 마치고 집 가면 집이 제일 편해야 하는데, 집이 불편하고 불안하니까 주눅이 들고, 자신감도 많이 낮아졌어요. 내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피해 청소년들은 현재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고립감으로 자살과 같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함.

“기대거나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끄공 앓다 보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으면 끝이 없을 것 같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변 어른의 관심으로 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어른이나 학교 선생님과 같은 주변인의 관심과 도움으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됨.

“집을 나와서 처음 이들은 혼자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거나 지하상가에 있었어요. 3일째 되는 날 지하상가 소파에 앉아있었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을 거시더니 ‘늦은 시간까지 왜 여기 혼자 있냐?’고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대답을 안 했는데 우유 같은거 사주시고, 신경 쓰고 챙겨주셔서 제 사정을 털어 놔더니 경찰에 가는 게 좋겠다고 신고해주셔서 쉼터에 오게 되었어요”



“아빠한테 얼굴 쪽으로 많이 맞으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보고 ‘이마가 많이 부어있다.’고 안타까워 하면서 신고해주시려고 했는데, (중략) 제가 확실한 증거 같은 것을 모으고 학교 선생님이 신고 해주셔서 보호시설(쉼터)로 오게 되었어요”

‘쉼터생활과 상담으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학대 행위자와 분리되어 쉼터에서 보호와 안정감을 느끼면서 어둡고 힘든 심리상태가 회복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등 긍정적 정서를 경험함.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고 아빠 생각도 나지만, 그래도 아빠가 내가 생활하는 반경 내에 없으니까요. 쉼터 선생님들도 도움 주시고 여기 동갑친구나 동생하고 언니들이 있는데 속마음도 나누고 있어요. 전보다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쉼터가 보호역할을 해주니까요”



“저는 아빠랑 떨어져있는 거요. 적어도 여기(쉼터) 있으면 맞을 일은 없으니까요. 마음도 많이 편해 지고... 제가 신고하고 (쉼터에)들어왔으니까 아버지도 뭐.. 못 들은 제 얘기도 다 들었을 거고, 떨어져 있는 동안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가지니까 많이 회복이 되는거 같아요”

“쉼터에 오기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쉼터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생활에 적응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도 경험해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진술하고 수용적으로 들어주는 상담자를 통해 위로를 받고, 심리적으로 안정됨.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상담을)기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담 받아보니 좋더라고요. 제가 뭐 또 가출했다 그러면 거의 다 뭐 또 비행 저질렀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상담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다 잘 들어 주시고, 해결방안도 잘 말씀 해주셨어요. 원래는 아무한테나 집안 얘기나 이런 걸 얘기 안 하는데 지금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상담이) 큰 도움이 되었거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사적인 얘기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고 속이 좀 시원해지는 게 좋았어요. 천천히 성격도 밝아진 것 같고... 사람도 잘 못 믿고 마음을 안 열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은 마음을 열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안전하다는 느낌... 드디어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 청소년들은 학대행위자와의 분리, 쉼터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 하게 되면서 경제적 자립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게 됨. 이들은 자립을 위해 공부를 하거나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등 희망을 가짐.

“자립 준비를 하고 싶어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아르바이트나 취업 쪽으로 도움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몰라서, 찾는 것도 잘 모르겠어서 그런 쪽으로 도움 받고 싶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갈 마음은 없어요”



“마음을 잡아가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뭐든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요. 자격증 공부든.. 뭐라도 일단 열심히 해서 잘 돼야...”

- 특히, 인터뷰대상자들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대행위자와의 분리’, ‘쉼터와 같은 보호·지원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가 우선’이었음.

“가해자랑 떨어져 지내게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상담도 필요하지만 이런 쉼터 같은 보호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요. 가정폭력으로 힘든 아이들을 보면 저도 힘들고, (집을)나오니까 드는 생각이 지금도 힘든 아이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들이 용기 내서 신고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힘든 곳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3.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과 향후과제

“가정에서 받은 상처로 집을 나온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주변 어른의 끊임없는 관심과 도움이 필요, 집을 나와 돌아갈 곳 없는 청소년에게 안전한 보금자리와 자립을 돕는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이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이나 경제적 지원책 등 가정으로의 복귀가 아닌 사회 적응을 위한 자립복지가 필요”

■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국가차원의 심리, 보호, 자립 지원 필요

-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가해 부모와 재결합이 불가능하지만 피해 청소년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관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 지원 필요.
- 또한 쉼터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상담뿐만 아니라 청소년전문가의 진로상담은 물론 검정고시,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지원 방안이 촘촘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임.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전국 약 130여개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20여개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운영을 지원 하고 있음.

- 청소년복지시설은 가출 등 위기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 및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관별 운영매뉴얼 및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기관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무엇보다 가출·위기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가정복귀·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에 힘쓰고 있음.

■ 더불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올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을 개발, 2021년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및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급하여 위기청소년이 근거리에서 전문적인 심리지원 및 보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조성

-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폭력 상황에서 어느 기관에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함(성민영, 2020.08.10.).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 할뿐 아니라 2차 피해를 경험하기도 함.
- 일반국민을 포함하여 현장 실무자들의 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 감수성 및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생존형 가출’을 선택한 청소년이 가출팸이나 노숙 등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보호 시설 정보를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 찾기 앱’과 같은 매개체를 적극 개발, 홍보하여 위기청소년이 상담이나 쉼터 정보 등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무엇보다, 피해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지원은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의사와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함.

가정폭력 징후 체크사항

- ☑ 사고로 보기에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다.
-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 ☑ 계절에 맞지 않은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 ☑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 사유가 불명확하다.
- ☑ 가족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을 보이고 집에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 ☑ 집에 가기 싫다고 적극적으로 말한다.
- ☑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 ☑ 이전에 부모로부터 경미하게라도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



※ 가정폭력은 아이들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한 주변 어른들의 도움이 중요!
 청소년이 위의 가정폭력 징후를 하나라도 보인다면,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신고기관을 통해 보호조치를 가해야 함.

참고문헌

- 김기현, 염동문, & 유비. (2019). 현장 아동학대위험도 평가기반 학대발생가족 유형화 연구. *피해자학연구*, 27(1), 163-189.
- 김세원. (2016). 아동학대의 위험요인 분석 및 가족중심 예방전략.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1), 3-20.
- 김지윤. (2020.09.21.). “부모역할, 처음이면 배워야죠.”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63045.html>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2017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성민영. (2020.08.10.). 가출 청소년들 위한 ‘안전망’ 시급.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81019070308272>
- 이상균, 장화정, 김수린, 김경희, & 김미경. (2017).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2016년 업무량 분석.
서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이세원. (2020).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 아동학대 피해자로의 개념 정립을 위한 소고,
사회복지법제학회, 11(1), 113-141.
- 이승환. (2020.07.04.). [기자의 눈] 코로나와 아동학대...이웃의 관심 필요할 때.
news1뉴스. <https://www.news1.kr/articles/?3985734>
- 이인선, 황정임, 최지현 & 조윤주. (2017). 가정폭력 실태와 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혜정. (2012). 부부폭력을 목격하고 자란 자녀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2), 157-182.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19).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허윤희. (2019.11.04.). 갈 곳도, 잘못도 없는 -자립 정착금 없는 청소년쉼터 퇴소생들 주거환경 열악-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800.html

부록

청소년상담센터 (135개소)

가출 청소년을 위한 보호·생활·자립 시설로 거리상담을 통한 긴급구조·일시보호, 생활지원(의식주), 상담·교육, 문화활동, 의료서비스, 자립준비 및 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

지원서비스

- 의식주 등 생활지원
- 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상담지원
- 검정고시, 학습지원 등 교육지원
- 진로상담, 자격취득,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 자립지원
- 공연 캠프활동, 취미생활 등 문화활동지원
- 건강검진, 의료비지원, 법률자문 등 지원

보호기간

*일시상담(7일 이내) 단기상담(3개월 이내) 중장기상담(3년 이내)

청소년 자립 지원관 (9개소)

청소년상담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 후 자립기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주거, 자립, 생활지원과 같은 통합사례 관리와 성인기에 진입하는 청소년의 '보호와 생활지원' 차원을 넘어 안정적 주거를 바탕으로 자립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

자립지원관 유형

- *비숙박형시설 : 공공주택연계+자립지원프로그램
- *숙박형시설 : 생활관직접운영+자립지원프로그램

서비스지원